

# 국민 10명 중 8명 “주식·펀드 투자”

## 투자자 절반 5천만~1억원 가량 운용 대부분이 수익률 저조 별 재미는 못봐 5명 중 1명 꼴로 금융자산 직접투자도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지만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투자자의 50%가 5천만~1억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KRX)에 따르면 거래소와 아쿠르리아가 지난달 10~18일 실시한 총 501명의 인터넷·전화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 여부에 대해 '1년 미만 투자' 44.9%(225명), '1년~3년 미만 투자' 23.7%(119명), '3년 이상 투자'

16.8%(84명) 등 응답자의 85.4%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투자금 규모는 5천만~1억원이 50.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30.2%, 1천만~5천만원 10.1% 등으로 집계됐다.

투자금 마련은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응답자가 7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월 소득의 일정분을 투자금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25.5%로 나타났다. 대출 등 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는 4.2%에 불과했다.

또 20.1%는 직접투자를, 71.3%는

직·간접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의 72.8%가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직접 해외투자를 한다는 응답자는 19.8%나 됐다.

그러나 이들 투자자들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미국발 약재 등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약세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2.3%가 최근 1년간 수익률이 은행 이자나 원금 유지수준이라고 답했고 10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는 12.1% 수준에 그쳤다.

75.7%가 투자수익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답했고 특히 20대(76명) 가운데 1억원 이상을 투자자금으로 운용한다는 응답자는 15명이나 됐다.

투자정보 획득 매체로는 45.0%가 일간지와 경제전문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문 투자사이트 29.1%, 애널리스트 등 전문 투자자를 통한

정보획득 16.3%,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 투자 카페 활용 7.6%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5명 가운데 1명 꼴로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002년 976조원이던 국내 가계 금융자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07년에 약 1천717조원을 기록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자산운용 패러다임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부담이 높은 금융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금융자산 가운데 금융자산 직접투자 비중을 보면 2003년 7.5%, 2005년 7.0%, 2007년 21.2%로 집계됐다. 펀드 비중도 2003년 4.8%에서 2007년 9.8%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 가공식품 ‘짜통국산’ 사라진다

## 반가공 수입식품 제조국 표시 의무화

앞으로 반(半)가공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마지막 가공 후 판매되는 식품은 반가공국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수산물 등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국내로 수출하려는 업체는 미리 식약청에 제조공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생퀴머리 새우깡'과 미국산 '생쥐 한마리' 야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로 생산국 제조공장 단계와 통관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반가공 식품의 제조국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농림수산물부와 협의해 원재료명 표시란에 반제품 표시를 병행하도록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퀴머리 새우깡'의 경우 반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는 튀기는 과정만 거칠 뿐인데도 반제품 가공에 대한 사실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또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려는 외국 제조업체는 식약청에 제조공장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저산성 통조림(low acid canned foods)' 등에 대해 이같은 현장 실사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김치 등 다소비 식품 업체, 유기농제품 업체, 원료식품 제조공장 등에 대해 현지 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식품위생법에 '우수수입업체(GIP, 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해 제조과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이 우수한 수입업체에는 통관 때 무작위 검사를 받은 횟수를 줄여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무역적자 4개월째 지속

## 3월에도 6억7천만달러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 행진이 3월에도 이어졌다.

수출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3월에도 6억7천만 달러의 적자가 나와 환율위기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당초 130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던 정부의 예상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62억 달러, 수입은 368억7천만 달러로 6억7천만 달러의 월간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3월 적자 규모는 1월(37억9천만 달러)과 2월(12억5천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93.9달러에 달한 탓에 지난달 원유 수입량이 7천200만 배럴로 10.8%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원유 수입액은 67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2.7% 증가했다. 아울러 신형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9.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점도 무역적자 축소의 큰 요인이었다.

3월초부터 20일까지 대(對)중남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6%, 대아세안 수출이 35.8%씩 급증했고 거대경제권으로의 수출도 중국이 31.5% 늘어난 것을 필두로, EU(21.4%), 일본(15.2%), 미국(10.0%)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가격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9% 감소한 대신, 석유제품(62%), 무선통신기기(41%), 일반기계(24%), 석유화학(24%) 등의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한편, 정부는 1·4분기 내내 무역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흑자 전망치의 수정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 삼성 모바일 단말기 최고

'Q1'과 PC형 카드 'E100'(왼쪽부터)을 선보이고 있다.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통신전시회 'CTIA 2008'에 참여한 삼성전자의 홍보 도우미들이 모바일 와이맥스 단말기인 울트라 모바일 PC

#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 수입요건 개선 재벌 계열사·은행株 ‘호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재벌 계열사와 은행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1일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사모투자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투자한도를 확대할 경우 은행주의 수급 요건이 크게 개선되며 재벌들도 지주회사 전환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져 유리해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허용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 10%로 상향 ▲보통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편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가 주내용인 이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체의 금융업 진출이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진출을 시도할 경우 은행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이날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우리금융 등 민영화 관련 은행주에 제한적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벌 계열사들도 이번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꼽혔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전략부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이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 향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진 것도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그룹은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이 사라져 지주회사 전환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 현대·기아차 ‘잘 나가네’

## 신차효과·해외공장 증설 힘입어 1분기 판매 사상 최대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차효과와 해외공장 증설에 힘입어 역대 1·4분기 사상 최대 판매실적을 냈다.

1일 국내 5개 완성차업체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1~3월 각각 71만2천529대, 34만872대의 완성차를 팔았다. 작년 1~3월 대비 16.4%, 3.6% 늘어난 것이다.

특히 5개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 등 2개사만이 국내시장에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대차는 작년 1.4분기 보다 10.8% 늘어난 15만8천338대의 차량을 지난 3개월간 국내에서 판매했으며, 기아차는 10.4% 증가한 7만4천411대를 팔았다. 반면 GM대우와 르노삼성, 쌍용차의 올해 1·4분기 내수 판매는 작년 1·4분기에 비해 각각 17.7%, 9.7%, 15.0% 줄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작년 1·4분기 72.9%에서 올해 1·4분기 77.7%로 무려 4.8%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런 성장세는 무엇보다 신차 효과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월 각각 제네시스, 그리고 모닝 개조차와 모하비를 내놨다.

제네시스는 2월 2천809대가 팔린 데 이어 3월에는 4천739대가 판매돼 국내 고급 대형차 시장 1위 자리를 2개월 연속 차지했다.

또한 작년 11월 출시된 쏘나타 트랜스폼 역시 내수 최다판매 1위 차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작년 7월 판매되기 시작한 준중형 해치백 모델 i30은 지난달 처음으로 '월 3천대 이상 판매'(3천51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장 “재벌 담합·내부거래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규제 완화 대신 이들의 담합이나 독과점지위 남용,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창립 27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대세”

라면서 “그러나 이들의 담합이나 독과점지위 남용, 부당 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규제완화를 계기로 공정위의 힘과 위상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변화는 정치논리나 외부의 감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의 실패를 막는 기본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감시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금융위 부위원장 “전략적 사모펀드만 은행 소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쉬워지지만 규제완화 대상은 전략적 투자자에만 한정된다.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PEF는 투자가본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를 하

는 곳만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한국에 자금이 모자랐고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국계 투자가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며” “홍콩의 경우도 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곳만 은행

소유를 허용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PEF를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로 명확히 구분할 만한 기준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제조업 업황 갈수록 악화

## 韓銀 4월중 BSI 조사

지난달 광주·전남 기업들은 원자재값 상승(53.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내수부진(12.3%) ▲자금부족(4.9%)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2.7%) 등의 순이었다.

또 지역 기업들은 이달에도 업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제조업의 4월 업황 전망BSI는 81로, 전달(100)보다 크게 하락했고 비제조업 업황 전망BSI도 전달(73)보다 하락한 64로 조사되는 등 업황전망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로 사향으로 원자재값 상승(53.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내수부진(12.3%) ▲자금부족(4.9%)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2.7%) 등의 순이었다.

또 지역 기업들은 이달에도 업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제조업의 4월 업황 전망BSI는 81로, 전달(100)보다 크게 하락했고 비제조업 업황 전망BSI도 전달(73)보다 하락한 64로 조사되는 등 업황전망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부화재 광주 고객서비스팀	동부화재 광주지점 TM Manager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3	062-220-8366
KB도기업	지재관리 및 사무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03	062-523-0235
MBC이커뮤니티미용학원	학원행사, 학생취업상담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4	062-225-6391
L&G이노텍	일일 비서 및 사무지원직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4/04	062-950-0458
자강산업	품질보증직/영업출하직/지재관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4	062-956-6142
세이브월드	[(네비세이브카드)] 영업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5	062-385-2072
엘론서치	[[금남로]하나호텔리조트 고객센터(연 2,000명)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4/07	02-6012-9540
튜닝아이	쇼핑몰 운영관리 직원	고졸/경력1년	1400~1600	04/07	062-372-9002
로젠택배(광주광역시북구영일소)	로젠택배 광주광역시 북부영일소 2층 영업소 지입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7	011-9611-5666
㈜스텝포유	[[고정금인생] 신한카드 고객상담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07	062-412-5454
㈜아이엔비코퍼레이션	교육홍보팀 경력직 사원	고졸/경력2년	2200~2400	04/08	062-222-6630
㈜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사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4/10	062-603-3360
코리아인스텍	과회기기업인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12	062-251-0251
㈜진영엔지니어링	자동화기계설비 조립공	초대졸/경력3년	1800~2000	04/12	062-971-2300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

# 설탕·밀가루 용량 못속인다

## 지경부, 32개 포장상품 눈속임 조사

정부가 설탕이나 밀가루 등이 표시용량만큼 제대로 포장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일 생활필수품 32개 품목에 대해 시장 유통상품을 구입, 그 내용량이 표시된 양과 다르지 여부도 여부를 검사하고 허용 오차를 초과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쌀·콩가루·채소주스·과일잼·설탕·분말커피·액상커피·겨자·라면·과자·햄·꿀·우유·발효유·분유·참치캔·김·식용유·고추장·고기양념·식초·카레·음료수·생수·소주·부탄가스·엔진오일·도로·가투세제·섬유유연제·비누 등이다.

지경부는 또 업체가 생산, 포장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실량 관리를 실시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도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업체가 실량 관리 인력과 장비,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3개월간 관리실적을 갖춰 적합성 확인기관에 신청해 기준에 적합하면 상품에 'k'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k'마크 표시상품은 지자체의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32개 품목에 대해 대대적으로 확인,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동으로 이 같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